

찬송가 28장 - 복의 근원 강림하사

1.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
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
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
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
2.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
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
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
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
3.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
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
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
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

찬송가 370장 - 주 안에 있는 나에게

1.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
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
 2.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
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
 3.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
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
 4.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
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
- (후렴)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
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

2024년

신년 가정 예배



신년 가정 예배 순서

※ 예배 전 유의사항

순서에 들어있는 '말씀나눔'은 같이 읽거나
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.

개식사 인도자

새해가 밝았습니다.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
2024년을 시작하겠습니다.
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.

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

찬 송 28장 다같이

기 도 가족 중 한 사람

성경말씀 창세기 12장 1-4절 (구약 14쪽) 말은이

-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
-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
-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
-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

말씀나눔 ' 믿음의 여정 ' 말은이

찬 송 370장 다같이

주기도 다같이

말씀나눔

믿음의 여정

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,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이 시간 함께하는 가족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. 2024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이길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

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따라 즉각 순종하며 고향을 떠났다는 말에 믿음의 조상은 역시 다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시 말씀만 '따라갈 수 밖에'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익숙한 곳을 떠나 생전 처음 가 보는 낯선 길을 그냥 가야했기 때문입니다. 심지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떠났습니다. 늘 그렇듯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상태일 것입니다.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믿음 없이 바라보면 막막하고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그러나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. 우리가 가는 길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.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. 믿음이란 신념이나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. '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'이 믿음입니다. 낯선 곳에 들어선 어린아이를 보십시오. 떨리는 손으로 엄마 손을 꼭 붙들고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. 아이의 눈에는 낯선 어른들이 거인 골리앗처럼 보일 것입니다. 그 세계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고 이끌어 줄 사람은 엄마뿐이라는 것을 아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이것이 믿음입니다. 나를 인도하는 이가 누구이며, 나를 보호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.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. 여호와와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들은 대로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.

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
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(창세기 12:4).

성도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씩 믿음의 행동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. 한해가 끝났을 때 감사할 열매가 가득 넘치고 나눌 은혜가 가득한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